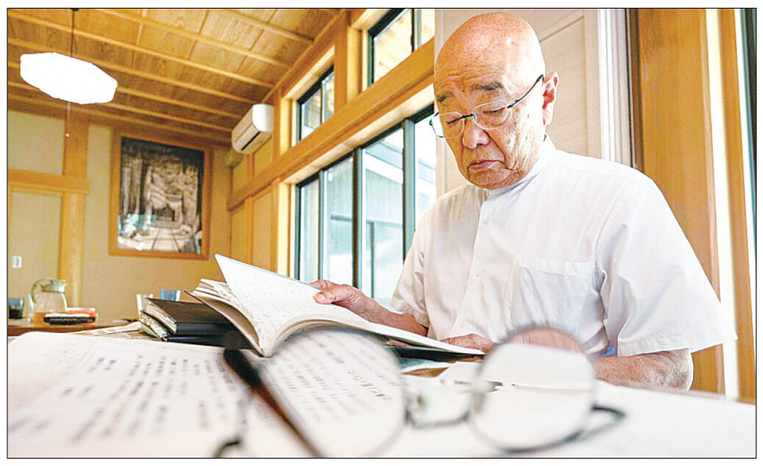
日 스님들, 사기범죄 당한 노인 '마음 치유'

전국 50여 도반스님들과 함께
무료상담 네트워크 만들어 활동
상시로 전화 · 방문 상담 가능해
"공감이 피해 회복 만큼 중요"

박영빈 객원기자



피해자가 남긴 자료를 살펴보는 에이이치 스님. 사진출처=AFP통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노인층을 겨냥한 사기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상담에 발 벗고 나선 스님들이 화제다.

지난 11월 10일 'AFP 통신' 'UCA 뉴스' 등 외신은 피해상담 네트워크를 만든 시노하라 에이이치 스님과의 인터뷰를 특별보도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인이 많은 일본. 이 노인들을 겨냥한 다양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조직적 사기로 인한 피해총액은 370억엔(약 3220억원)으로 2021년보다 30%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몇 년 만에 역대 최고액을 찍었다. 특히 이 사기범죄 피해자 90% 가까이는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고령자들이 사기에 취약한 이유로는 스마트폰 사용의 미숙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노하라 스님은 출가 후 오랫동안 캄보디아 난민캠프와 빈곤층을 구제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후 일본에 귀국해서도 형편이 어려운 유학생들을 돕거나, 자살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명성이 높다. 최근 스님은 50여 명의 도반스님들과 함께 사기 피해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스님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인층에 대한 사기범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닌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특수 사기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괴멸적인 타격을 주고, 피해자를 자살로 내몰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없다"고 말했다.

시노하라 스님이 피해자 상담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피해자들이 가지는 자기혐오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됐다. 스님에게 상담을 받은 후 사망한 70대 여성이 남긴 일기를 받아 본 스님은 "피해자는 일기를 통해 죽을 때까지 사기를 당한 것이,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이나 친지들과 인연이 끊긴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며, 자신은 죄인으로 평생 그 고통을 짊어져야한다는 아픔을 이야기했다"면서 "가해자가 아닌 노령의 피해자가 이러한 아픔을 안고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진행해온 상담을 통해 스님은 노령자들이 피해에 취약한 이유가 경찰의 분석처럼 최신 기술에 취약한 점도 있지만 가족이나 친지들과 오랫동안 교류하지 못한 고독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일반적으로 사기범들은 가족이라며 돈을 요구한다. 고독한 노령자들은 이때 다시금 자신이 가족들과 연결되고 도움이 되거나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로 쉽게 생각해버린다"며 노인의 고독감에 대한 정신적인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가능한 언제 어느 때나 상담을 받으려 하고 있다.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해 오는 분들도 있다"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도 금전적 피해의 회복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日 조동종, 남미포교 120주년 맞았다

1903년 우에노 스님이 포교 시작
남아메리카 이주노동자 신행활동
7월부터 강연·기념법회 등 이어져



조동종 남미포교 120주년 기념법요식 모습. 사진출처=소토젠-넷

일본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된 일본불교의 영미권 포교는 그 역사가 100년이 넘어간다. 이 가운데 일본 선종의 대표적인 종단인 조동종이 남아메리카 포교에 나선지 12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11월 8일, 일본 조동종의 소식을 전하는 '소토젠-넷'은 일본 조동종 포교의 역사를 소개하며 기념행사들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조동종 측은 "남아메리카의 농장에 노동자로 이주한 일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신행활동이 이어졌고, 1903년 이들의 요청으로 효고현 출신의 선사 우에노 타이안 스님이 페루로 건너간 것이 정식 포교의 시작"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스님의 활동에 힘입어 1907년에는 일본 이민자들의 도움을 받아 페루의 수도인 리마 교외에 남미 최초의 불교사찰로 꼽히는 지온지(慈恩寺)를 창건했다.

기념행사는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다. 7월 22일에는 '선의 이야기', 8월 12일에는 '선의 입문'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열렸다. 8월 중순부터는 페루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등 각국에서 모인 선수행자들과 포교사, 불자들이 모여 기념 집중 안거와 친목교류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 기념법회와 문화행사엔 현지에서 수행중인 40여 스님들이 참석, 그 외 신자와 각국의 조동선 수행자 등 일반 참가자 15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전했다.

8월 25일에는 지온지 법당에서 사찰을 창건하고 지켜온 일본인 이민자들과 현지 수행자들의 영가를 천도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지온지 측은 "최초의 사찰인만큼 일본이민자 1세대부터의 위패나 묘를 지키고 있다"면서 "항상 일본 달력으로 우란분절의 기간이 되면 리마를 비롯해 각지에 흩어져 사는 일본계 후손들이 사찰을 찾아온다. 지온지는 단순한 사찰이 아닌 이민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교육하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남아메리카의 포교현황에 대해 "지온지를 비롯해 현재 남아메리카 각국에 6명의 국제포교사가 각자의 선센터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 맞는 포교법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동종 측은 "120년 전 처음 페루로 건너온 타이안 선사에 의해 전해진 법등은 지금껏 다 설명하기 어려운 난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현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며 "선의 뿌리를 이 땅게 깊고 확실하게 내리면서, 그 줄기를 키워나가며 이 땅에 더욱 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제1회 선불교 문화축제 개최

난화사 소장 유물 53점 선보여
중국 경제 정책 기여를 목표로



북송시대 조성된 오백나한상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출처=난화사

지난 11월 8일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에서 열린 제1회 선 불교 문화축제와 전시회 개최 소식을 전했다.

제1회 광동-홍콩-마카오 대만 선불교 문화축제가 열린 가운데, 광동성 소관 조계산에 위치한 남종선(南宗禪)의 탄생지인 난화사(南華寺)에서는 '다르마의 발자취를 따라: 난화사 1500년'이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에서는 난화사 소장 불교 유물 53점이 대중에 최초로 공개됐다.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광동, 홍콩, 마카오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협력 파트너 국가의 불교계와 교류를 더욱 강화하여 불교 인문학을 풍부하게 할 것이다. 또한 교류를 통해 광동과 홍콩 · 마카오를 단일 경제권으로 잇는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고 전시회의 의의를 밝혔다.

전시에는 난화사에서 가장 오래된 북제(北齊, 550~557년)시대에 조성된 청동 불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북송(北宋, 960~1127)시대에 조성된 오백나한상은 두껍고 간결한 북송시대의 목조각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서기 502년에 창건한 난화사는 육조혜능(638~713) 선사가 30여 년간 돈오 법문을 펼쳤던 행화도량(行化道場)이다. 사찰에는 대장경, 율장, 법의 등 많은 국보를 보존하고 있다. 가장 귀중한 유물 중 하나는 혜능 선사의 등신불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美 베트남 사원, 화염병 투척에 방화 피해

빠른 진압으로 인명 피해는 없어
증오 차별 반대 성명문 이어져



화염병 투척 방화로 피해를 입은 명상센터. 사진출처=후엔짱 불교 명상센터

지난 11월 7일 미국 텍사스의 지역 방송사 'ABC13'은 베트남계 불교 명상센터의 화염병 방화 피해 소식을 전했다.

미국 텍사스 뉴케니 자치구에 위치한 후엔짱 불교 명상센터가 화염병 투척으로 방화 피해를 입었다.

후엔짱 불교 명상센터가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11월 5일 오후 9시 45분경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휘발유 통을 들고 명상센터로 진입했다. 출입구 앞에서 휘발유 통에 불을 붙이고 창문으로 던지자 센터 내부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남성은 황급히 달아났다.

다행히 화염병 투척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엔짱 불교 명상센터의 수잔 응우옌 스님은 "화재가 발생하자 센터 직원과 이웃들이 진압을 도왔다"며 "이들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불을 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그 누구에게도 원한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방화범에게 화가 나지는 않지만 단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서 "지난 2022년 10월에 요사채가 전소된 일이 있었는데, 소방 당국은 전기 문제라고 말했지만 같은 일이 발생한 지금 방화가 의심되며 다시금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후엔짱 불교 명상센터의 화염병 투척 방화 피해 소식을 들은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The Asian American Foundation) 대표는 "범인의 방화 동기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소속감이 흔들렸다"면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 시설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증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몽고메리 카운티 당국은 안전과 보안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길 바란다"면서 "또한 의회와 백악관이 종교 기관들이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범적인 보안 조치를 시행할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연방재난관리청(FEMA) 비영리 보안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접근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방화범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등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제12주년 창종기념법회를
11월 11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봉행했다.



종정 법운, 원로수덕, 원로동화, 지암, 설봉, 경담, 민철, 경봉, 법송, 자성, 지송, 추송선각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응공조계종 법운 대종사는 '수행을 하는데 아상을 가져서는 절대로 바른 수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니.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한 순간이라도 놓치지 말고 자신을 뒤돌아 보고 자성을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법문을 설했다.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1095) 전화 054)974-2605, 010—3544—2605 / 팩스 054)974-2705

금륜재 지도자 연수생 모집

금번 전통불교문화예술협회에서는 조선시대에서 행해져온 금륜제를 발굴 복원하여 옛 화려했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자 교육행사를 마련 하였습니다. 일제에 의해 말살 되었던 소중한 문화의식 신도들의 자손과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위하는 복된 신앙을 되찾아 전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금륜천제가 불교가 아니라는 어리석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편협한 무지 일 것입니다. 30년 전만 하드레도 자손들을 위해 칠성당에 복을 빌고 대웅전에서 자성을 밝히는 인연 도법 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동호인과 함께 많은 불자에게 공개하겠읍니다. 항간에는 몇몇 주지스님들께서 절 운영이 어렵다고들합니다.

왜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 소홀이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화기를 거치면서 참선 일변도로 신앙 행태가 무지함에서 비롯된 안타까움이며 운영이 어렵다는 결과를 낳고 말았읍니다. 금륜제는 사찰을 꽃피우고 신심을 고취하며 화기애애한 생기를 가져올 것이며 융성쾌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는바 있으시다면 동참하시기를 적극 당부들이며 금륜재 지도법사 교육을 소개하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추천 소개해올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 나무금륜보게치성광 여래불

금륜재

1부 : 칠성각 = 칠성예청 2부 : 칠성무와 신통수련
전화 : 010-7387-2833 강주 : 금륜당 화엄

금륜당 화엄 합장